

## 제도적 문화기술지: 왜 또 다른 연구방법인가?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주는 유용성과 함의-\*

김 인 숙

(가톨릭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캐나다의 사회학자인 도로시 스미스(Dorothy Smith)가 발전시킨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를 소개하고, 이 방법론이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주는 유용성과 함의를 탐색하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소개에서는 이 방법론의 출발점, 개인과 사회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제, '입장(standpoint)', '문제들(problematic)'과 같은 방법론적 장치, '일'과 '일 지식(work knowledge)', '텍스트', '제도적 담론'과 같은 '제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적 개념들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기술하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론은 사회복지 제도가 작동되는 실천(정책) 현장의 '실제(actualities)'를 정교화하고, 제도적 변화의 구체적 지점들을 발견하게 해주며, 연구자가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식을 생산하게 촉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기존 사회복지 지식지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제도적 문화기술지, 도로시 스미스, 사회복지 지식

### 1. 서언

질적연구방법은 단일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양적연구방법이 단일한 전통과 표준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질적연구방법은 다양한 전통 혹은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사례연구, 담론연구, 내러티브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전통을 가진 연구들이 질적

\* 이 연구는 201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연구로 불려진다. 그래서 질적연구방법은 “상대적으로 함께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일군의 연구방법”으로 정의된다(Denzin and Lincoln, 1994).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각 전통들 내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 질적연구방법의 다양성은 ‘축복’만으로 여기기는 어렵다.

질적연구방법이 사회과학의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질적연구가 다양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린다. 한편에는 질적연구의 전통을 선택해 연구하는 것이 질 좋은 연구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입장(Creswell, 1998)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다양한 전통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켜 질적연구에의 접근을 어렵게 할 뿐이라는 입장(Padgett, 1998; Hammersely, 2008)이 있다. 전자는 다양한 전통이 질적연구의 과학적, 정치적 기반을 확대시켜준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질적연구의 다양한 전통이 질적연구의 입지를 좁히고, 연구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연구방법론인가? 왜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인가? 질적연구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축복’이라거나 ‘선’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같은 전통 내에서, 뚜렷한 방법적 차이 없이, 네이밍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의 동향은 확실히 문제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문화기술지’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방법론이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갖는 유용성과 함의가 다른 질적연구의 그것과 비교할 때 나름의 고유성이 있고, 이 고유성이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놓쳤던 사회복지 탐구영역을 가시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캐나다의 사회학자인 Dorothy Smith에 의해 발전된 연구방법이다. 그녀의 출발은 페미니즘 사상이었지만, Marx와 Garfinkel, Foucault, Mead, Bakhtin 등에 영향을 받아 “사람을 위한 사회학(a sociology for people)”을 구축하던 과정에서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갔다.<sup>1)</sup>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용어 자체로만 본다면, 마치 문화기술지 전통의 다양한 지류들<sup>2)</sup>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문화기술지라는 외양을 빌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통적 문화기술지 방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 1) Smith의 저작들은 1987년부터 다수의 저작이 있지만 정작 제도적 문화기술지라는 타이틀을 내건 저작은 2005년과 2006년의 두 권이다. 이는 그녀가 처음부터 제도적 문화기술지라는 방법론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회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론이 발전하게 되는 경로를 밟았기 때문이다. 2005년 저서는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적 개념들을 풍부하게 기술하고 있고, 2006년 저서는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들의 실제 연구경험을 기술한 것을 Smith가 편집한 것이다.
- 2) 문화기술지는 분화하고 있다. 해석적 문화기술지(interpretive ethnography), 비판적 문화기술지(critical ethnography), 여성주의 문화기술지(feminist ethnography), 조직적 문화기술지(organizational ethnography),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문화기술지(auto ethnography)에 이르기까지 문화기술지 용어 앞에서 붙여지는 수식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문화기술지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다. 문화기술지의 이러한 확장은 문화기술지 연구가 처음 시작된 학문분야에서조차 아직 연구방법에 관한 규범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지나친 분화와 확장이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문화기술지 방법의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확장이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를 말해 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를 거칠게 표현해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들을 둘러싼 제도 또는 지배관계에 얽혀드는지를 연구자의 해석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론이다. 사람들의 일상세계가 제도적 과정에 의해 어떻게 짜여지는지가 제도적 문화기술지 탐구의 출발이다. 여기서 행위자인 주체는 제도나 지배관계에 포섭되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행위자와 제도는 모두 상호 조정되는 능동적 존재로 간주된다. 제도문화기술지에 대한 이러한 거친 표현을 얼핏 보면 기존의 여러 질적연구방법들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정보제공자들의 경험이나 행위를 맥락과 연관지어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를 들어, 전통적 문화기술지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를 그들을 둘러싼 문화적 맥락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근거이론은 사람들의 실제적 경험과정을 이론화하면서 그 경험의 맥락을 끌어들이며,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의 대표적 예증으로서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상과 맥락 간 연관성의 총체성을 보여준다. 담론연구는 행위와 구조, 관념과 물질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담론의 역할에 주목하며, 실행연구(action research)도 연구자가 가진 개인적, 사회적 삶을 탐구해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 때문에(이용숙 외, 2005) 행위와 구조, 현상과 맥락간의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과 맥락, 행위와 구조,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틀’ 안에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질적연구방법들과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미시현상을 거시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미시를 수동적 주체로, 거시를 능동적 주체로 보는 기존 질적연구방법들의 이원론적 관점을 벗어나 미시와 거시 모두를 능동적 주체로 간주한다. 이로써 행위자들의 경험적 실체가 ‘조정’되는 과정 자체를 ‘사회(the social)’로 보고 연구가 진행된다.

둘째는,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개념적 도구들 예를 들면, 일 지식(work knowledge), 텍스트, 제도적 담론, 문제틀(problematic), 입장(standpoint), 조정(coordination), 사회적 조직화(social organization), 실제(actualities), 지배관계(ruling relation) 등을 설정함으로써 미시와 거시가 함께 ‘조직화’되는 모양새를 보다 정교하게 묘사해 줄 장치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 다양한 장치들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개인적 문제나 고통을 불평등의 문제로 이동시키거나, 개인이 모든 종류의 억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정교한 도구이다(Campbell and Gregor, 2004: 9).

셋째, 기존의 대부분의 질적연구방법들이 미시와 거시의 연결을 이해하는 방법적 도구는 ‘해석’이다. 미시현상을 거시 개념이나 이론으로 해석함으로써 미시와 거시의 연결을 시도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해석된 실제’가 아닌 ‘실제’ 그 자체를 그려주려 한다. 따라서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실체를 해석하거나, 연구과정에서 이론이나 개념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실제 경험 이 지배관계로서의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면서 ‘조직화’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해석’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description)’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점이 바로 바로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문화기술지’가 되는 지점이다.

사회복지학내 많은 질적연구들은 큰 틀에서 경험과 맥락, 행위와 구조, 미시와 거시의 연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평가는 달라진다. 즉 기존의 질적연구들이 제도와 같은 거시적 맥락과의 정교한 연결 없이 주관적 경험에 치중되어 있어 사회복지 제도와 접촉하

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미시 영역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다(김인숙, 2012). 아울러 이 둘의 연관을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현장 안의 '실제'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맥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실제'가 어떻게 제도에 연관되어 '조직화'되는지,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지배관계로 엮여지는지를 그려준다. 그런데 사회복지학 내 기존 질적연구들 중에 이러한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차별화된 특징들을 담아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sup>3)</sup>

또한 사회복지학 내 질적연구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속성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인숙, 2012). 그러나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내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구축하려면 정책과 실천을 포함한 사회복지 제도적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현장과, 이 현장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서로 엮이고 조직화되는 양태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려줌으로써 제도적 맥락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사회복지 현상의 실천성에 집중하게 한다. 즉, 사회복지 실천행위의 구체적 지점들을 가시화해 줌으로써 제도적 현장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 인테이크 양식이 조직 내 사회복지 실천을 어떻게 이끌고, 관련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지에 대해 제도적 문화기술지로 접근하는 경우, 인테이크라는 텍스트 양식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이 방법론이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어떤 유용성과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2.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출발점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출발점이 된 것은 “주체위치”(subject position)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sup>4)</sup> ‘주체위치’가 문제 삼는 것은 인식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경험들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로 다른 주체위치에서의 경험들은 “단절”(disjunction)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주체의 ‘위치’는 주체가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범주가 아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주체위치’는

3) 국내에서는 2006년 박경환이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영문으로 게재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가 있을 뿐이다(박경환, 2006).

4) Smith(2005)가 ‘주체위치’를 의식하게 된 것은 페미니스트 사고의 영향이다.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들의 ‘입장(standpoint)’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다. 억압받는 집단의 구성원인 여성은 바로 그 ‘위치’ 때문에 남성들과는 다른 경험, 다른 지식을 갖게 된다. 즉, 여성이라는 범주, 입장에 주목하면 여성들의 ‘위치’의 다름으로 인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드러난다. 페미니즘의 이러한 사고는 그녀에게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은 그들이 서 있는 ‘위치’(“주체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체위치”에 주목해야 함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Smith(2005)는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주체위치’ 즉, 사회적 범주 혹은 사회적 위치로서의 ‘주체위치’를 사회적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확장하여 일상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일상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Smith, 2005: 7-25).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로서의 일 경험과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경험 사이에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차이’가 존재한다. 심지어,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만 지역이 달라져도 클라이언트의 경험들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 있는 위치 즉, 프로그램 구조 내에서의 위치 혹은 지역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Smith(2005)는 주체가 서있는 위치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차이’를 “단절”로 바라보았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 “단절”에 주목한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단절”에 주목하되, “단절”을 거부한다. “단절”은 외양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실체는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절”로 보이는 현상들 사이에는 복잡한 맥락들과 담론, 조직화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단절”의 현상 기저에 작동하는 복잡한 조직화 양상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적 삶이 어떻게 제도에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위치”에서 출발한 Smith(2005: 57-60)의 문제의식은 이론적으로 진화한다. 그녀는 단절을 더욱 강화시키는 주범으로 기존 사회학의 추상화된 이론과 개념들을 지목한다. 추상화된 이론과 개념이 단절 이면에 작동하는 복잡한 사회적 조직화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추상화된 이론과 개념들은 연구자를 일상세계 밖의 보편적 주체로 위치시킴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통역하는 독백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녀는 연구자를 이러한 보편적 위치에서 빼내어 일상적 주체위치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즉 연구자를 정보제공자의 입장에 위치시킴으로써 연구자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독백적 해석을 막고, 연구자에 의해 통역된 일상세계가 아니라 진짜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조직화된 ‘실제(actualities)<sup>5)</sup>’를 그려 내하고자 하였다. 이 조직화된 실체를 그려내면 ‘단절’을 넘어설 수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중요한 목표는 주체위치를 살려내어 단절의 진정한 실체 즉, 단절 이면에 작동하는 사회적 조직화의 ‘실체’를 그려주는 것이다.

‘주체위치’와 ‘단절’에서 출발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자연스럽게 ‘실체’를 살려내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도로시 스미스는 이론과 개념이 실체를 압도하면, 개념적 틀이 실제에 대한 해석을 지배하여 실체가 이론적 담론 안에 갇히고, 사회가 대상화되며, 인식주체를 일상의 경험세계 밖으로 몰아내어 주체위치를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하였다(Grahame, 1998). 나아가 글에서 사람과 행동이 사라지고, 개념화된 실체가 행위주체가 됨으로써 “실체”는 드러나지 않거나 사라진다고 하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론에 압도되지 않는, 이론이 개입되기 이전의 ‘실체’를 그려내하고자 한다.

이처럼 주체위치에 주목하여 주체위치를 살려내려는 노력은 추상화된 이론과 개념에 대한 거부와 “실체”를 그려내야 하는 당위로 이어졌다. 여기서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그려내려는 “실체”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단절 이면에 작동하는 “사회적 조직화”이다. Smith(2005:13)에 의하면, 이 ‘조직화’는 “지배관계들”의 역사적 변천 속에서 생겨나며, 개인적 경험을 성찰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지배관

5)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실체(actualities)’는 텍스트 밖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술되거나 이름 붙여지거나 범주화되는 것 그 이상을 말한다(Smith, 2005:223).

계'는 사회의 '새로운' 조직화 양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그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조직화 양상을 '지배관계'로 명명하였으나, 그것은 이전의 '지배관계' 개념과는 다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Smith(2005:13-14)가 명명한 '지배관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 우세적인 지배관계(영어로는 domination)를 의미하지 않는다. 계급적 관계가 아닌 텍스트, 언어, 객관화된 지식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며, 시공간을 가로질러 일상의 삶을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녀는 현대사회가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담론적 실천이 지배관계를 복제해 낸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말하는 "지배"는 관리, 전문가, 정부, 미디어, 학문들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직화하고, 조정하고, 규제한다는 의미이며(Grahame, 1998), 지배관계는 "기업, 정부관료,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담론들, 대중매체 등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관계들"(Smith, 2005:25)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제도(institution)"는 사회조직의 결정형태가 아니라, 바로 이 새롭게 조직화된 지배관계로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관료제나 텍스트가 매개된 담론, 국가, 전문직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의 일상적 실체가 보다 큰 제도와 지배관계, 사회적 조직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

### 3.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구성

#### 1)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존재론적 전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존재론적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다.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 중에는 현상학적 연구처럼 연구방법의 인식론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연구방법들이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을 분명히 하기보다 암묵적으로 제시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존재론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래야 연구과정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듣고, 기록하고, 분석할지가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존재론적 전제의 핵심 키워드는 '실제', '조정', '언어'의 세 가지이다.

##### (1) 사회(the social)<sup>6)</sup>는 '실제'를 토대로 존재한다

Smith(2005: 31)는 기존 연구들에서 '실제'가 개념과 담론에 갇혀 대상화됨으로써, "실체가 사라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녀는 범람하는 추상화된 이론과 개념들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적 '실제'가 감춰지고 왜곡되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은 곳은 Marx의 연구방법과 문화기술지 방법이었다. 그녀는 이론적 개념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실제 속에서 찾아야하며, 사람들

6) Smith가 말하는 '사회(the social)'는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전제하는 사회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과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활동들을 의미한다 (Smith, 2005:227).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사회'는 통상적 의미의 사회(society)와는 다르다. 그것은 엄밀히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사회'로 번역했다.

의 활동은 사회관계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마르크스의 논의와, 이론이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묘사'하는 문화기술지 방법에서 '실제'를 그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장면들은 그 장면 내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고, 그 장면의 배경 즉, '사회적 조직화'의 형태를 알 때에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Campbell and Gregor, 2004). 예를 들어, 정신보건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에서 사회복지사와 동등한 주체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경우, 우리는 흔히 그 정신장애인의 일상경험 자체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경험을 결정짓는 정신보건 제도 자체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정신장애인 개인의 일상경험이 그 경험 너머의 제도들과 어떻게 조직화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불만을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개인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도, 제도의 총체성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일상적 장면에서 보이는 개인의 행위들과 제도들 간의 사회적 조직화 양상을 보여주려 한다.

이로부터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추상적 이론이나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 '실제'를 드러내는데 있어 '해석'을 거부하고,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극 수용하는 것에 이른다. 여기서 문화기술지가 의미하는 것은 일상에서 출발하고, 해석이 아닌 묘사를 하고, 개념과 실제 간의 대화(독백이 아닌)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실재를 드러내 보여주려면 해석이 아닌 묘사를 통해 개념과 실제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Nichols(2008)의 노숙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는 '실제'를 이론 안에 가두지 않았다. 그의 연구는 사회서비스들이 노숙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더 나아가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추상적 개념 안에 규정지으려는 경향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까지 나아간다. 그의 연구는 사회서비스 생성과정이 노숙청소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노숙 청소년이 제도적 맥락에서 무기력하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노숙 청소년의 사회서비스의 '실제'의 조직화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사회'는 '실제'를 토대로 존재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탐구하려는 일상과 제도, 일상과 지배관계를 연관짓는 토대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다. 사람들의 활동이 사회관계로 조직화되며, 사람들의 '실제' 행위 속에서 '사회'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끊임없이 '실제'로 돌아가고, '실제'를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한다(Campbell and Gregor, 2004:17).<sup>7)</sup> 이런 점에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개인을 사회로부터 개별화시키고, 사회를 개인으로부터 대상화시키는 기존 주류 연구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서 있다.

7)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전제하는 사회의 존재론적 토대가 '실제'라는 점은 연구과정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사회가 실재를 토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는 담론과 이론이 아닌 현장의 일상적 실재에서 시작한다. 문헌고찰도 기존의 다른 질적연구와는 달리 문제틀(problematic)을 통해 포착된 현장의 '실제'의 프리즘을 통해 고찰한다. 정보제공자의 주관적 경험과 사고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실제로 행한 활동을 찾아내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Campbell and Gregor, 2004: 50-55; Smith, 2006; Nichols, 2008).

## (2) 사람들의 활동이 '조정' 되는 곳에 '사회' 가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사회'는 '실제'를 토대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실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Smith(2005:59)는 경제 개념에 관한 Marx의 논의, 상징양식의 조정에 관한 Mead의 논의, 일상적 대화의 조정에 관한 민속방법론을 토대로 사회는 사람들의 활동과 실천이 '조정(coordination)'되는 바로 그 곳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는 사람들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활동과 '조정'됨으로써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조정'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사람들의 활동들 속에서 일어난다. Smith(2005:61)는 사람들의 행동이 '조정'된다는 관점에서 일상을 들여다보면, "각 개인은 독특하고, 그만의 경험과 이력을 갖고 있고,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른 욕망과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조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발견해야 하며, 그러자면 정보제공자들의 관점과 경험의 '차이'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행동들의 조정, 조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말하는 '조정'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일어난 조정은 다시 사람들의 관점, 관심사,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조정은 또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며, 이 조정을 통해 일상과 일상 너머가 연결된다(Smith, 2005: 64-67).

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의 활동이 조직화된 것이 '사회'이며, 사회는 '조정'을 통해 움직여 나간다고 본다. 이렇게 '조정'을 핵심에 놓으면, 경험들의 공통부분이 아니라, 경험들의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들의 '차이'로부터 경험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정되고 조직화되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기존의 일반적 질적연구방법과는 달리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 서로 다른 장에서 보여지는 '차이'에 주목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질적연구방법이 해석을 통한 경험의 공통 패턴 찾기라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실제에서 일어나는 '차이들'을 통한 '조정'그리기로 볼 수 있다. Smith(2005:44)는 "한 개인의 이야기 속에는 그의 실제는 물론 그와 연관된 다른 이들의 행동, 행동을 조정하는 관계가 담겨있기" 때문에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두면 '실제'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

## (3) '조정' 은 '언어의 조직화' 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조정을 촉진하고, 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언어'로 본다. 여기서 '언어'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야기, 그리고 텍스트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바로 이 '언어'가 사람들의 활동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직화하는지를 분석하게 해주는 방법적 도구라고 본다. 언어는 어떻게 사람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조직화하는가?

Smith(2005:76-85)는 언어가 개인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회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언어를 사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언어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매개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조직화하기 때문에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런 입장



은 언어의 조직화 기능에 관한 Mead와 Bakhtin의 설명에 기대고 있다. Mead에게 언어는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 필수적인 “의미있는 상징”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축적된 반응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험을 사회적으로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Bakhtin에게도 언어는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을 조직화한다. 화자와 청자의 언어가 의식을 조정하면서 “개인상호간 영역(interindividual territories)”이 탄생하는데,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각세계를 조합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언어가 의식을 조정하면서 탄생하는 “개인상호간 영역”이 경험 수준과 텍스트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경험기반 영역”은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경험을 동원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텍스트기반 영역”은 현재 시점이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의 관점과 상관없이 단어의 본질만을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번져나간다(Smith, 2005: 86-94). 현대사회는 텍스트 기반 영역이 광대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적 텍스트들은 그 안에 제도적 담론을 담고 있고, 이러한 담론들은 그 제도에 연관된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변화시킨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독창성 중의 하나는 텍스트 영역에 집중하여, 텍스트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사회적으로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텍스트의 활동과,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관계에 주목한다.

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과 텍스트를 포함한 언어의 사회적 조직화 기능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언어를 통해 실체가 조직화되고,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과 텍스트 모두에 일상의 실체가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조정되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바로 이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의 일상과 제도(혹은 지배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 2) 방법론적 장치: ‘문제들’ 과 ‘입장’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주체위치는 일상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는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일상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실체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일상적 실체는, Smith(2005)가 ‘단절’ 현상으로 불렀듯이, 그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장에 따라 서로 다르고, 그것들은 단절되어 보인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람들의 일상적 실체와 경험을 맥락과 고립하여 다룸으로써, ‘단절’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일상적 실체와 경험들이 ‘단절’을 넘어 어떻게 더 큰 조직과 제도에 얽여 있는지 그 조직화 양상을 그려내는 방법을 고민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제도적 관계에 참여하고 제도적 관계에 말려드는지 그 조직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방법론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장치는 그 출발점과 연관되어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주체위치’를 살려내면 일상의 실체들이 더 큰 지배관계, 제도적 관계에 어떤 모양으로 조직화되어 있

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주체위치'와 '일상과 지배관계(또는 제도적 관계)의 조직화'라는 두 가지의 방법론적 장치를 도출할 수 있다. Smith(2005)는 전자로부터 "입장(standpoint)"을, 후자로부터 "문제들(problematic)"이라는 방법론적 장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들은 '주체위치'와 '일상의 조직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듯이, 자웅동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 (1) 문제들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단절"의 이면에 작동하는 복잡한 "사회적 조직화"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방법은 세 가지이다. 일상의 실재를 개념적, 이론적 용어로 해석하지 않는 것, 문화기술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연구과정에 '문제들'을 적용하는 것이다(Smith, 1987). 이중에서도 '문제들'은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을 제도와 지배관계로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문화기술지만의 방법론적 장치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문제들'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진행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제들'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 제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Smith, 2006). 결국,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는 '문제들'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 제도, 사회적 조직화, 지배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들'은 원래 Althusser가 사용했던 용어이다. Althusser에 의하면,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설정되는 이데올로기적 구조나 틀을 의미하지만, Smith(2005: 41)는 이를 변형하고 구체화한다. 그녀에 의하면, '문제들'은 연구자가 정답을 찾으려고 던지는 질문도, 사회구성원들이 말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녀는 '문제들'을 일상세계가 조직화되는 방식에 함축된 질문들로 방향을 튼다. 이 때 '문제들'은 개념과 이론 앞에 존재하며, 사태가 어떻게 조직화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만든다.

'문제들'은 일상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 이 복잡한 관계가 조직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들'로 보면 생활세계는 사회관계가 끝없이 발견되는 영역이다. '문제들'은 일상이 일상 그 자체를 넘어 확장된 고리들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미지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생경한 힘(power)의 형태들이 서로 통해 있음을 알게 해준다((Smith, 2005: 40-41). 예를 들어, 국기법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일 조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도적 문화기술지로 연구하는 경우, 연구자는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일을 '문제들'로 바라보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사회복지사의 일이 관료조직의 조직문화와 연관되어 조직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의 일이 한국사회의 온정주의적 복지이념의 담론적 틀이 작동하면서 조직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들'은 쉽게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다. 그래서 찾아내고 발견해야 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문제들'은 기존 해석적 질적연구의 '맥락'과는 다르다. 기존 질적연구에서 맥락은 행위자의 미시적 행위나 주관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가치, 조직, 구조, 체계이다. 여기서 미시적 행위나 주관적 경험이 맥락과 연결되는 방식은 추론이나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이다. '문제들'은 기존의 해석적 연구에서처럼 추론이나 이론의 적용을 통해 발전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제

도적 과정에 대한 연구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일상 경험으로부터 발전된다(Smith, 2005: :207).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실제'와 경험의 '차이'에 집중한다. 즉 '문제들'은 추론이나 이론이 아닌 '실제들'에 익숙해지고, 경험의 공통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의 '차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전된다. 특히, 문제들은 '일 지식(work knowledge)'이나 '텍스트의 조정'과 같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개념적 도구들을 적용할 때 더 정교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상의 경험을 '문제들'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들'은 연구의 출발 지점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Smith(2005: 41)에 의하면,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문제들'은 "발견"되어야 하고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문제들'이 연구의 시작은 물론 문헌고찰, 자료수집, 자료분석의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발견되고,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들'은 연구 초반에 적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연구의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를 정교화하고 추동해가게 만드는 방법론적 장치이다. Grahame(1998)은 '문제들'을 질적연구의 지속적 비교나 양적연구의 변수와 같은 기술적 용어에 견주면서 사회적 조직화를 밝히기 위한 방법론적 차원의 개념적 조사도구로 여겼다. '문제들'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또 다른 방법론적 장치인 '입장'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 (2) 입장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출발점은 '주체위치'였다. 주체위치를 살려내면 주체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실제들이 더 큰 지배관계와 제도적 관계에 조직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주체'는 일상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입장(standpoint)"은 바로 이 주체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주체들의 경험 내부로부터 파악할 수 없는 것 즉, 그 경험을 조직화하는 것에 함축된 사회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주체가 '입장'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Grahame, 1998).

Smith(2005:10)는 처음에 여성주의 연구자인 Harding의 "여성들의 입장론(women's standpoint)"으로부터 '입장' 개념을 빌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Harding의 '입장' 개념을 변환하고 재구성한다. Harding의 경우 '입장'은 사회 내 지위, 젠더, 계급, 인종과 같은 범주나 위치를 지칭한다. 이때 연구자의 '입장'은 이들 범주로부터 배제되거나 억압받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입장'은 이와 다르다. '입장'은 주관적 관점이나 구체적 세계관을 의미하지 않고, 일상세계에 대해 갖는 주체의 지식이 어떻게 조직화되는지 그 결정적 지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Smith, 2002). 따라서 '입장'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면서, 이들 주체의 위치에서 일상을 뛰어넘어 작동하는 사회관계, 제도적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장치이다.

그런데 '입장'은 '문제들'을 도입함으로써 온전해 진다. Smith(2002: 2005)는 '입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제들'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문제들'은 일상이 지배관계와 사회적 조직화로 얽혀있음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장'은 '문제들'로 정향되는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장치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비록 일상생활의 실제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상을 뛰어넘어 지배관계와 사회적 조직화의 작동을 그려줄 수 있다. 이처럼 '입장'과 '문제들'은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이다. ‘입장’은 마치 현상학적 연구에서 “현상학적 태도”에 비유된다. 어떤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태도”라는 방법론적 장치를 작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장’은 어떤 연구가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로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제도적 질서 내에서 ‘입장’을 찾음으로써 시작한다.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핵심 단계이자, 연구의 과정을 안내해 준다.

### 3) ‘제도’ 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

앞에서 언급한 바 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회는 “실제”를 토대로 사람들의 활동이 “조정”되는 곳에 존재하고, 이는 언어의 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존재론적 입장에 기반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회’를 개인 밖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the social)는 실제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조정’은 이렇게 사람들의 주관성과 능동성을 인정하고 끌어들인다. 현실에서 사람들의 조정의 형태는 반복해서 재생산되는데,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Smith(2005:223-227)는 “사회적 조직화”로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직화의 초지역적(translocal) 형태를 “지배관계”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지배관계는 교육, 보건, 복지 등과 같은 차별적 기능을 둘러싸고 조직화되는 관계를 말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제도(institution)”는 바로 이러한 지배관계 안에 내포된 복합체를 지칭한다. “제도적(institutional)”이라 함은 이러한 제도가 움직임 상태로 발견되는 것 즉, 특징의 시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 조정이라는 제도의 특징적 일반화 양식이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Smith, 2005:225).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제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국기법 제도와 같은 조직화된 제도적 실체에 대해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제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제도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발견한다는 말은 조정, 지배관계, 사회적 조직화 양태의 ‘실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Smith(2005)는 이러한 ‘제도적’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경험영역과 텍스트 영역이라는 두 영역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을 문화기술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두 영역에서의 제도 발견은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 두 영역은 상호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점이야말로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포착해내지 못한 지점이다.

#### (1) 경험영역에서 ‘제도’ 발견하기: 일(work)과 일 지식(work knowledge)

흔히 ‘경험’은 질적연구의 자료로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가리킨다. 기존의 질적연구에서 ‘경험’은 해석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세계를 설명한다. 이 해석과정에서 맥락이 끌려 나오고, 개인의 주관적 경험은 맥락과 어우러져 ‘사회속의 개인’ 또는 ‘개인 속의 사회’를 그려낸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관심은 ‘실제’이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과연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도 일상과 제도 사이의 사회적 조직화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가? Smith(2005)는 Bakhtin의 “개인상호간 영역” 개념을 끌어

들어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녀는 경험이 실체를 순수하게 재현하지는 않지만, “경험으로 회상되는 것은 이미 조직화된 것이어서, 경험적 이야기에는 이미 사회관계와 사회적 조직화가 스며들어 있다”(Smith, 2005: 129)고 본다. 그러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렇게 조직화된 실체를 경험 속에서 찾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내었는가? 그녀는 경험의 기반을 사람들의 ‘일(work)’과 ‘일 지식(work knowledge)’에서 찾아내었다. ‘일’과 ‘일 지식’에 대한 통찰이야 말로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독창성이자, 제도적 문화기술지를 탄탄한 연구방법론의 위치에 자리매김 하게 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일’, ‘일 지식’은 경험을 검토하기 위한 비유적 틀이자 개념이다. 여기서 ‘일’은 우리가 활용하는 의미보다 훨씬 확장된다. ‘일’은 유급노동만이 아니라 무급의 활동 전체를 포함한다. ‘일’은 시공간은 물론 조건과 자원을 수반하므로 사람들이 행하는 것만이 아닌, 행위에 필요한 조건, 상황, 맥락, 역사, 제도와 접촉한다. 나아가 ‘일’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행하는 것, 행하고자 의도하는 것, 특정 조건 하에서 행한 것은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일’ 개념은 넓은 의미의 일을 포괄하며, 이는 개인의 주관성까지를 포함한다(Smith, 2005: 151-154). ‘일 지식’은 행위자가 자신이 행한 ‘일’과, 그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과 조정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경험을 ‘일’과 ‘일 지식’으로 보면 연구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해석을 피하면서 행위자의 ‘실제’ 즉, 조정과 조직화 양상을 더 잘 보이게 해준다. 즉, ‘일’에 주목하면, ‘일’이 접촉하는 조건, 상황, 맥락, 제도, 역사를 만나게 되어, 지배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일 지식’은 사람들의 ‘실제’를 보게 해 준다. 나아가 ‘일’의 과정을 따라가면 일이 ‘조정’되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고, 일 지식의 ‘차이’를 끼워 맞추면, 제도적 과정과 조정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Smith, 2002).

그런데 사람들의 ‘일 지식’ 산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 담론이다. Smith(2005:156-157)는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일’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제도적 담론에 있다고 한다. ‘일’에 제도적 담론이 개입되면서 ‘실제’가 제도적 담론에 포섭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 담론은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 현장, 구체성, 주관적 경험을 삼켜버리고, 그 결과 제도적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내게 한다는 것이다. 실체가 제도적 담론에 포섭되는 과정은 텍스트 대화에서 보다 실제 대화에서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고 있거나 했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일’ 개념을 끊임없이 적용해서 행위의 구체적인 것, 활동의 환경, 수단, 시간, 자원, 사람들의 생각, 감정 등 ‘실제’를 찾고, ‘실제’로 돌아가고, ‘실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그래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가 ‘일 지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통상적 장벽의 밑바닥까지 꿰뚫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태도가 요구된다(Smith, 2005: 157). 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늘 ‘실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제도적 담론에 포획된 경우 분석시 쓸모가 없게 된다(Devault and McCoy, 2006). ‘일 지식’ 개념은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가 ‘실제’를 향하고, 실제의 조직화 양상을 그려내도록 돕는 개념적 도구이자 전략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 (2) 텍스트 영역에서 ‘제도’ 발견하기: 텍스트의 ‘활성화’와 ‘조정’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텍스트’<sup>8)</sup>는 ‘일’과 함께 제도를 발견하는 핵심 고리이다. Smith(2005:2006)가 ‘텍스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텍스트가 ‘실제’와 ‘조정’을 가리기 때문이다. 사회적 조직화의 실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텍스트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텍스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보이지 않던 ‘실제’ 혹은 ‘실제의 조정’이 보이는가?

우선, 텍스트가 무엇을 일으키고 발생시키는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때 텍스트는 관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문제틀로 설정되어야 한다. Smith(2005:101-120)는 ‘텍스트-독자 대화(text-reader conversation)’의 개념을 끌어들이어 이를 설명한다. ‘텍스트-독자 대화’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가 활성화되고, 텍스트의 독자가 텍스트의 행위자가 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 즉,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메시지를 현실세계나 활동에 끌어넣어 텍스트를 실제 현실 안에 묶어두며, 동시에 텍스트에 응답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텍스트를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 보면 텍스트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의 활성화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텍스트의 시퀀스를 보게 되고, 나아가 텍스트가 제도, 지배관계에 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텍스트가 실체를 어떻게 가리는지를 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텍스트의 ‘조정’ 양태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다. Smith(2005:123)는 제도적 조직화가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매개 과정에서 텍스트(특히, 제도적 텍스트)는 행위자의 관점을 보이지 않게 하고, 행위자가 한 경험의 특수성을 포섭해버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를 가린다. 그래서 실제 행위는 선택적으로만 드러나거나, 담론의 한 예증이나 예시, 표현으로만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바우처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강박적 회계행위들을 전자관리 시스템이라는 텍스트가 매개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관료화’의 한 예증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텍스트의 ‘조정’ 양태는 텍스트가 ‘일’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Smith(2005:178)에 의하면, “일은 텍스트를 지향하고, 텍스트에 기반하며, 텍스트를 생산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텍스트는 ‘일’ 안에서 무엇인가를 일으키고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을 동원하고 통제한다. 또한 텍스트는 ‘일-텍스트-일’, ‘텍스트-일-텍스트’의 형태를 취하면서 움직이고, 자신이 승인한 행위주체에게 일을 조정하고 동원하는 과위를 준다. 텍스트의 ‘조정’에 과위가 작동한다는 것은 텍스트들 간에 위계가 있고, 규제적 역할을 하는 텍스트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규제적 역할을 하는 텍스트들(예: 법, 행정규칙, 지침 등)은 ‘틀’을 갖고 있고, 이는 ‘실제’를 ‘제도적 실재(institutional reality)’로 변환하면서, 사람들의 경험, 이해관계, 관심사를 이 틀에 맞추어 해석하게 한다. 특히, 이 ‘틀’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예: 사회복지사)이나 텍스트 장치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범주나 개념, 틀이 텍스트에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을 명확히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8)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텍스트’는 글이나 그림, 기타 산출물을 복제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형태(예: 문서, 인쇄물, 필름, 전자적인 것)를 말한다(Smith, 2005:228).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양식들과 지침, 문서들, 법령,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기록 등이 텍스트에 해당된다.

(Smith, 2005: 183-200).

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현실에서 일과 텍스트가 결합되어 작동함에 주목한다. 즉, 텍스트가 단독으로가 아니라, 일상의 행위자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텍스트가 사람들의 활동,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 텍스트와 일이 결합되어 작동된다는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통찰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방법적 도구가 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텍스트와 일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접근하는 한계를 넘어 현실의 복잡성을 통찰한 것이자 동시에 이 복잡성을 그려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연구 상황에서 일 지식과 텍스트가 어떤 관계로 맞물려가면서 제도에 이르게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일 지식’이 텍스트를 완충하는지, 아니면 텍스트가 ‘일 지식’을 강압하는지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와 일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장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구물의 축적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사회학’ (“사람을 위한 사회학”)이 될 수도 있다.

### (3) 문화기술지로 접근하기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제도와 문화기술지라는 두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키워드만 놓고 보면 얼핏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문화기술지의 아주처럼 보인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를 두 용어로 거칠게 풀이해 보면,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제도를 발견하기’가 된다. 왜 문화기술지인가? 전통적 문화기술지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이나 문화를 ‘묘사(description)’하는 과학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기술지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관점을 융합하는 입장을 취한다. 오늘날 문화기술지를 ‘순수한 묘사’ 즉 완전한 에믹(emic)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행동이나 의식이 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해석’은 불가피하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문화기술지’는 이런 일반적 의미의 문화기술지와는 다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일상적 실체와 제도 간 조직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석을 거부하고,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극 수용한다. 이는 일반 문화기술지가 해석을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대조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말하는 문화기술지는 일상에서 출발하고, 해석이 아닌 묘사를 하고, 개념과 실제 간의 대화(독백이 아닌)를 강조한다. 즉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문화기술지는 해석을 거부하고 묘사를 주장한다.<sup>9)</sup>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이 기반하고 있는

9)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과정에서 ‘해석’이 완벽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Liza McCoy(2006)는 자신의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의 분석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제도적 문화기술지 과정에서도 해석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제도적 흔적을 뽑아내고, 사람들의 일이 제도적 접점에서 어떻게 형체화되는지를 파악할 때 해석적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해석적 과정은 제도적 흔적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 영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의 적용을 통해 접점을 찾아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 상담하고 매월 예약하는데, 이 ‘일’은 환자의 경험과 건강보호 서비스 ‘일 과정’ 사이의 접점에 있다. 환자의 경험이 어떻게 제도적 조직화로 이루어지는 알기 위해서 연구자는 건강보호제도에 대

‘해석적 패러다임’ 밖에 있다.

그러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왜 해석을 거부하고 묘사를 주장하는가? 그것은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탐구하려는 ‘조직화된 실제’ 때문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회가 ‘실제’를 토대로 존재한다고 본다.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발견하려는 실체는 일상과 제도(혹은 지배관계)의 사회적 조직화 양상이다. 이는 실제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지, 추상화를 통해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은 연구자의 직관을 형식적 개념으로 바꾸고, 독백적 해석을 통해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일상적 실제와 제도 간 조직화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의 경험(혹은 ‘일 지식’)의 ‘차이’가 어떻게 상호보완되어 행위의 시퀀스를 보여주는지, 텍스트의 활성화가 어떻게 ‘일’과 결합되어 제도(지배관계)를 형성해나가는지를 보여준다. 해석적 틀을 적용하면 정보제공자들의 관점과 경험의 차이가 제거되면서 실제의 사회적 조직화는 보이지 않게 된다. 사회적 조직화를 보려면 텍스트와 일의 조정에 주목하고, 문제들과 사회관계의 개념적 도구를 적용하고, 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Campbell, 2006)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피해야하고, 해석 대신 ‘묘사’를 끌어들이 수 밖에 없다. 즉, 일상과 제도의 조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화기술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는 문화기술지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결과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는 “지도 그리기(mapping)”나 “모으기(assembling)”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들 비유는 정보제공자 각각이 사회적 조직화의 ‘조각’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Smith(2005:158-159)에 의하면, ‘일 지식’을 모아 ‘지도 그리 듯’ 하면 제도적 과정에서의 행위의 시퀀스를 찾을 수 있고, 제도적 과정 안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의 경험의 차이를 ‘모음’으로써 제도적 과정과 조직화가 그려진다. 또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일 지식’을 해석하지 않고, 서로 ‘이어 맞춤’으로써 조직화를 그려낼 수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결코 이론적 목적지를 갖지 않는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거시체계들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문화기술지적으로 탐구된다(Smith, 2005: 3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제도’를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개념과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제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이 사용하는 ‘해석’의 방법을 거부하고, 일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조직화’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 분석에서 ‘제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뷰 자료 등을 개인의 삶과 제도 간의 ‘접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제공자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정보제공자의 관점이나 의미에 사로잡히거나, 경험의 ‘차이’에 내포된 갈등에 사로잡혀 제도를 간과하거나, 제도적 포섭에 사로잡혀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제도적 담론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또한 연구자가 제도적 담론에 빠져서도 안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는 제도적 관계와, 경험의 사회적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빠져나가게 된다(McCoy, 2006).

한 지식을 환경의 경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McCoy, 2006:109-125).



## 4. 사회복지 지식형성에의 유용성과 함의

### 1)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대개의 질적연구방법들은 해석주의 패러다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법적 도구로서 '해석'을 사용한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해석적 패러다임 밖에 위치한다. '해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일반 문화기술지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차이는 이 양자간의 차이를 대표한다. 여기서는 일반 문화기술지를 포함해 해석적 패러다임에 속한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문화기술지와 차이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전자가 '경험', '의미', '해석', '공통의 경험'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제도', '사회적 조직화', '실제', '경험의 차이'를 강조한다. 기존 질적연구방법과의 차이는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연구의 초점을 '경험'에서 '제도'로 이동한다. 기존 질적연구방법에서 연구의 목적은 경험 자체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되지만,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정되고 조직화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도의 총체성을 그려내려는 것도 아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경험의 기술은 연구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일상생활의 장면들은 사회적 조직화의 형태들에 의해 모양 지워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의 일상경험이나 복지 개혁 이후 저소득 엄마들의 돌봄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의 일상 경험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정되고 조직화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경험'을 '제도'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경험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경험의 조직화를 '그려내려(mapping)' 한다. 기존 질적연구방법들은 경험의 공통 패턴을 찾아내고, 맥락을 끌어들이며 경험을 이해한다. 이 때 연구자는 경험과 맥락을 연결 짓는 과정에서 '해석'이라는 방법적 도구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이론적 개념과 범주를 적용한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의 공통성이나 패턴을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경험의 조직화 즉, 일상과 제도적 관계의 조정 양상을 통한 지배관계를 그려내려 한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그려내려는 실재는 '해석된' 실재가 아니라 '조직화된' '실제'이다. 이 조직화된 실재를 그려내기 위해 해석이 아닌 '묘사'를 사용하고, 기존의 다른 질적연구방법에는 없는 '일', '일 지식', '텍스트의 활성화', '텍스트의 조정'을 끌어들인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분석적 연구방법이기는 하지만, 해석적 코딩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분석은 무엇의 예증이 아니라, 항상 과정과 조정으로 이루어진다"(DeVault and McCoy, 2006).

셋째, 발견하려는 것이 경험의 '의미'가 아니라, 경험의 '사회적 조직화'이다. 기존 질적연구방법은 개별 행위자와 집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안의 사건과 관계들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 이때 연구자는 '통역'하는 사람이다(Grahame, 1998).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와 다르다. Smith(2005)는 제도

적 문화기술지가 사람들의 경험을 활용해 조직화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며, 문화기술지라는 말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들의 '차이'에서 '사회적 조직화'를 발견하려 한다.

넷째, 기존 질적연구방법들이 사람들의 경험의 공통성을 발견하려 한다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경험의 '차이'를 배우고 발견하려 한다. 기존 질적연구방법이 경험의 공통적 패턴을 찾는 것은 그 공통성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정보제공자들 사이의 일치점을 찾지 않고, 관점과 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지에 주목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이 '조정'과 '사회적 조직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의 공통성이 아니라 경험의 '차이'에 주목한다. 실제로, 관점과 경험의 차이는 조정이라는 제도적 형태에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에 핵심적이다(Smith, 2005). 경험의 '차이'는 상호보완되어 행위의 시퀀스를 보여준다. 이렇게 사람들의 경험의 차이를 자료로 하면 경험의 사회적 조직화, 지배관계를 그려낼 수 있다(Smith, 2005: 223).

다섯째, '맥락'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질적연구방법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맥락을 끌어들이며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 맥락은 타인이나 가치, 구조, 제도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둘러싼 거시체계이다. 기존 질적연구방법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문화기술지로 기술하면서 거시적 틀로 해석한다. 여기서 거시적 틀은 사람들의 외부에 인과적으로 관여하는 이론적 실체로 간주될 뿐이고, 문화기술지적 기술은 행위자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Smith, 2005: 37).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제도를 끌어들이며 경험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의 경험을 제도를 끌어들이며 이론적 개념을 적용해 해석하지 않는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일상의 경험을 제도와 연관시키는데 있어 '조직화'와 '지배적 실천'의 작동에 주목한다.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화의 연결양상 자체를 그리고자 한다. 따라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제도적 질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묘사하고 분석하며, 이런 점에서 행위자의 경험과 맥락을 연결함으로써 거시와 미시의 경계를 허문다(Smith, 2005: 36).

여섯째, 연구과정에서 이론의 개입을 거부하고, 이론의 자리에 문화기술지가 들어선다.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이 이론을 개입시키는 반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론과 관계 맺지 않는다. 기존 질적연구방법은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개념을 개입시킨다. 기존 질적연구방법이 이론을 개입시키는 지점은 다양하다.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은 대부분 문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길 꺼려한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특정의 이론, 개념들을 개입시킨다. 근거이론처럼 이론에서 연구를 시작하지 않으나 이론형성이라는 이론적 목적지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존 질적연구방법들은 연구과정의 지점 여하에 따라 이론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론을 형성하려는 이론적 목적지를 갖지도 않고,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이론이나 개념을 적용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론의 자리에 문화기술지가 들어서면서 연구가 '발견'을 향해 나아간다.

## 2) 사회복지 지식형성에의 유용성과 함의

연구방법론은 사회복지 학문영역이 어떠한 지식을 산출하느냐, 그 산출된 지식이 과연 해당 학문이 관여하는 현실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현재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론이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어떤 유용성과 함의가 있는지, 왜 또 다른 연구방법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 (1) 사회복지제도가 작동되는 실천(정책) 현장의 ‘조직화된 실제’ 를 정교화

한국 사회복지 지식생산의 특성 중 하나는 속성과 실천(정책 포함)의 지나친 불균형이다(김인숙, 2012). 학계가 사회복지학의 존립 기반인 실천(정책) 현장에 관한 지식생산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은 연구와 실천(정책) 간에 그만큼 거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거리와 괴리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복지레짐의 차이라는 거시적 설명에서부터, 연구와 실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실증주의와 같은 지배적 인식론의 우세,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의 결여에 이르는 미시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Dellgran and Hojer, 2001).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이슈는 연구방법론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미 서구에서는 사회복지 지식에 어떤 인식론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연구방법의 문제를 사회복지 지식의 본질 및 지향과 연관해 논의하였다(Holland, 1983; Heineman, 1985; Reamer, 1990). 그 결과 방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을 하나의 연구방법이나 인식론으로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Hartman, 1990).

사회복지 지식은 실천가(정책가)와 실천(정책) 현장이 직면하는 문제를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Dellgran and Hojer, 2001). 사회복지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지식들이, 특히 속성에 관한 연구들이, 과학적 엄밀성에 치중하면서 실천(정책) 현장의 문제들을 외면하게 되면 사회복지 지식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문제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책연구에서도 정책소설(policy fiction)에만 치중할 뿐 정책사실(policy fact)은 도외시하게 된다<sup>10)</sup>. 이는 한국 사회복지 지식생산이 학문 전반의 공적 담론과 지식을 아우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의 모든 실천 행위들은 제도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법과 정책이라는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며,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상호역동적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을 구성해 간다. 사회복지 지식은 바로 이 현장에 주목하고 관찰하여 여기서 제기되는 ‘실제’ 현상과 어려움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인간서비스 전문직을 길러내는 학문분야에서 유용하다(Smith, 2005).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세팅에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를 방법론 삼아 연구할 경우, 사회복지

10) 특정 정책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서상의 정책소설(policy fiction)이 아닌 정책이 발현되는 정책사실(policy fact)에서 출발해야 한다(김수영, 2012: 206에서 재인용).

지식 형성에 주는 가장 큰 유용성은 제도적 세팅의 모습을 새로운 각도에서 정교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독창적인 개념적 도구인 ‘일’, ‘일 지식’, ‘텍스트’를 복지제도의 세팅에 적용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제도적 텍스트들은 복지 제도 내 행위자들의 일을 통제, 조정하며, 이에 따라 복지제도 내 행위자들의 ‘일’이 조정된다. 연구자는 사람들의 ‘일’을 모아봄으로써 제도적 과정과의 연관을 볼 수 있다(Nichols, 2008). 사람들의 주관성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일’과 ‘일 지식’의 차이는 복지제도 내 행위주체들의 행동들이 제도적 망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그동안 사회복지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 온 거시와 미시의 연결 혹은 행위와 구조의 연결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이 양자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 일상적 실제와 제도 사이의 조직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사회복지 제도를 포함한 보다 큰 구조들과 어떤 연관(혹은 지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다.

일 예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제도적 세팅 내 사람들의 ‘일’을 모음으로써도 제도적 과정 및 정책과의 연관, 조직화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구체적 예로, 쉼터를 찾는 청소년의 ‘일’이 어떻게 복잡한 복지행정 레짐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화되는지를 보여 주는 연구가 있다(Nichols, 2008).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일’ 개념을 둘러싸고 조직화된다. 그 일이 조직적 지위에 따라 봉급을 받는 일이건, 레짐에 도전하는 운동가의 일이건 혹은 아동돌봄이나 질환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일이건 간에 관심의 핵심은 정보제공자의 행동이다.

이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세팅이 ‘일 지식’과 ‘텍스트’가 결합되어 조정되어 가고, 이 과정에서 제도적 담론들이 작동하는 복잡한 양상을 그려내게 해 줌으로써 ‘정책사실’의 주체와 객체 간의 역동을 세밀하게 그려 줄 수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이러한 유용성은 이 연구방법론이 가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이 탄탄하고 세밀하며, 명확하기 때문이다.

## (2) 사회복지의 제도적 세팅 내 작동하는 다양한 힘들과 변화의 구체적 지점을 발견

김인숙(2012)은 근거이론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한국 사회복지학 지식지형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미시(행위)와 거시(구조)의 단절을 지목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회복지 근거이론 연구들은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생애과정에서 겪는 미시적 현상에만 초점을 두고 그 현상의 변화와 과정, 인과적 기제를 보주는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같은 거시적 맥락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지식형성에서 절반의 성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추세는 질적 연구의 이미지를 ‘경험’과 같은 제한된 주제로 사람들의 미시적 속성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대 재생산 할 위험이 있고, 이는 최악의 경우 질적연구방법이 사회복지 지식생산 현장에서 계도화될 가능성까지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미시와 거시의 괴리,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단절’을 목도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회복지학의 질적연구방법들이 사회복지의 조직이나 제도, 체계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있다 해도 그것은 조직, 제도, 체제, 이념 등을

맥락의 일부로 여기고, 행위자의 미시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적연구들이 행위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복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그 장치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받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사회복지를 포함한 인간서비스 전문직에서는 주로 텍스트와 양식, 보고서를 가지고 일한다. 현장에서는 이런 텍스트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정책과 정책의 전제들이 실행되고 조직적인 파워가 행사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이러한 역동적 관계를 그려냄으로써 사태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지배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Campbell and Gregor, 2004: 33-36). 예를 들어, 정신보건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들이 어떻게 정신이상을 조직화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보건 기관의 양식들은 적극적으로 파워를 조직화하는 장치였다(McLean and Hoskin, 1998). 이 연구는 정신보건이라는 제도적 세팅에서 텍스트인 양식이 제도 내 행위자들을 어떻게 더 큰 제도와 연관되면서 그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

흔히, 제도적 세팅의 전문가들(복지사, 교사, 간호사 등)은 클라이언트와 지배담론을 연결하는 매개체인데,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이들의 제도적 언어 넘어서 그 세팅에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 과정(work processes)이 어떤지를 찾아낸다(DeVault, and McCoy, 2006:25-30). 그러면 로칼 세팅을 조직화하는 거시 제도적 정책을 추적할 수 있고, 제도적 세팅 내의 행위자와 구조의 조직화, 그 힘의 작동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실천가들에게 자신의 일이 해당 현장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제도와 연결되고 조직화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실천가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미시와 거시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세팅에서 자명하게 관찰될 수 있는 전문적 실천가들의 ‘일 지식’, 현장을 움직이는 ‘텍스트’의 역할, 텍스트를 매개로 움직이는 제도적 담론의 작동 양상과 지배관계 등 좀 더 ‘실제’에 기반하고, 실제의 조직화를 보여준다. 또한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가진 독특하고 독창적인 방법론적 개념들(입장, 문제틀, 일지식, 텍스트, 제도적 담론 등)은 적용할 때 그동안 사회복지 연구에서 간과되고 소홀히 다루었던 ‘행위와 구조의 연결’, ‘일상의 실제와 제도 간 조직화’ 가시화 해 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를 통해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들 보다 더 실천(정책) 현장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마리와 지점을 발견하게 해주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오늘날 제도적 문화기술지 접근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일을 형성하는 힘들 혹은 변화를 위해 제도를 이해하려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발전되고 있다(DeVault, and McCoy, 2006).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고도의 정교화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어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선택이다. 또한 인간서비스 실천가가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배우는 전략이며, 학생에게 일상생활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Campbell and Gregor, 2004: 16)

### (3) 연구자가 선택한 사람의 '입장' 에서 지식생산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사회복지 지식형성에 주는 또 다른 유용성과 함의는 연구자가 선택한 사람(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즉,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특정 위치에 있는 정보제공자, 지배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연구하며, 이것은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주된 기여이다(Campbell, 2003).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연구자가 선택한 사람은 지배받는 사람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일반적으로 지배받는 사람의 경험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지배 혹은 조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힌다.

모든 연구는 연구자가 선택한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해 알고자 한다. 선택한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해 아는 것과 그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르다. Smith(2005:7-25)는 '주체위치'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Hegel이 말한 주인-노예관계에 대한 우화를 끌어들이어 이 차이를 설명한다. 이 우화에서 노예는 주변화되고 억압받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주인 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더 잘 볼 수 있다. 그녀는 사회에 대한 지식은 항상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지배받는 사람은 이 점에서 인식론적 특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과 노예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연구자가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주체위치'에 대한 문제의식, '해석된 실제'가 아닌 이론이나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은 실제'를 보여주고자 한데서 비롯한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는 보편적 위치와 해석하는 '독백자'의 위치에서 정보제공자의 위치로 내려와 '대화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노숙 청소년에 대한 사회서비스들이 이들의 입장에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Nichols(2008)는 캐빈이라는 청소년 쉼터 사회복지사와의 대화로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자는 캐빈의 제안으로 쉼터에서 참여관찰, 관련자들을 인터뷰하다가 오린이라는 18세 청소년을 연구대상자로 선택한다. Nichols(2008)가 제도적 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으로 택한 이유는 오린이라는 청소년의 일상이 어떻게 그 너머의 것과 맞물리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Nichols(2008)는 오린의 이야기를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 가두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상대주의나 순진한 실재론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실제'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기는 하지만(Hart and McKinnon, 2010), 그렇다고 전통적 사회학이 가진 대상화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Walby, 2007).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아직 대상화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가 여전히 정보제공자의 재현에 대해 상당부분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기존의 전통적 연구들이 가진 대상화의 문제를 상당부분 피함으로써 특정 주체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기존의 많은 질적연구방법들은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해석적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질적연구가 수사상으로는 정보제공자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질적연구 결과들이 연구

자의 해석을 통해 '통역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Grahame, 1998).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이론과 연구자의 해석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제도적 과정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연구방법보다도 정책이나 제도의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정책개선의 제안이 가능하다.

## 5. 결론

제도적 문화기술지를 구성한 Smith(1987; 2005)는 여성 사회학에서 출발하여 '사람을 위한 사회학(a sociology for people)'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도적 문화기술지'라는 연구방법론에 이르렀다. 그녀의 중요성은 일상생활을 문제삼았다는 데 있지 않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학적 틀과 연구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있다. 일상생활의 활동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주목하고, 제도적 담론과 같은 이념적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들 활동을 규정하는지, 그리고 이들 활동들이 사회적 조직화의 지배적 형태들에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상의 전략을 고안한 것이다(Grahame, 1998: 347-348).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일반 질적연구방법들과 달리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독자적이고 탄탄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는 현상학이나 해석학에 기반한 질적연구 접근들과도 구분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현상학적 접근은 연구를 위해 현상학적 환원이나 현상학적 태도와 같은 방법론적 장치를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제도적 문화기술지처럼 정교하고 명확하며 논거가 탄탄하지는 않다.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기반이 탄탄한 만큼 포착하는 실재의 모습 또한 정교하고 구체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의 경험 그 자체나 경험의 의미를 다루지 않고, 경험과 텍스트 속에서 '실제'를 찾아내고 '조정' 양상을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나, '입장'이나 '문제틀', '텍스트의 조정'을 통해 '맥락'을 객관화하고 구체화한 것, 그리고 연구자의 해석을 피함으로써 행위자를 살아나게 한 것은 기존 질적연구방법과는 다른 제도적 문화기술지만의 특징이다. 더 나아가 공통성이 아닌 '차이' 찾기, 일과 텍스트의 시퀀스를 찾아 '지도 그리기', 개인-제도 간 접점 찾기, 분류나 유형화하지 않기, 제도적 담론의 포획에서 벗어나기 등과 같은 방법적 절차들도 기존 질적연구방법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적 문화기술지만의 차별화된 방법적 도구들이다(DeVault, and McCoy, 2006). Smith(2005; 2006)의 위대함은 이론적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다는 점과,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 '텍스트'와 '일 지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주목함으로써 '텍스트'와 '일'이 '실제'를 보여주는 핵심 고리라는 점을 통찰한 점에 있다.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이러한 장점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해석을 거부하고 묘사만으로 현상을 그려내고자 하는데, 과연 해석의 거부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화기술지 방식을 빌어 묘사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연구의 곳곳에서 해석이 개입될 수 밖에 없

는 지점이 있다. 어쩌면 문제들과 입장이라는 방법론적 장치 자체에서부터 이미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가 논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제가 정교하고 탄탄한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 전제가 정교하고 탄탄하면 실제에 대한 정교하고 깊이 있는 묘사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의 틀이나 범위 자체를 구체화하고 정형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구결과와 개방성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행위와 구조, 미시와 거시의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입장에서 행위자와 구조 모두의 능동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의 연구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출간된 논문들을 검토해 보면, 행위자의 능동성이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는 아직 유년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생산된다면 이 점에 대한 논란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그동안 사회복지 학문영역에서 불균형 상태로 있던 실천(정책) 현장에 대한 지식 축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왜냐하면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제도적 세팅 안에서의 일상적 실제와 제도 간 조직화 양상을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시와 거시, 행위와 구조 간의 단절 현상을 연결하여 그 상호역동적 과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미시와 거시로 단절되어 있는 사회복지 지식지형의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제도의 영향은 물론 개인의 행위가 어떻게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신제도주의' 관점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지식형성에서 제도적 문화기술지는 '제도'와의 연관성을 높이면서 정책과 실천을 포함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지식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문화기술지라는 또 다른 연구방법론의 소개가 연구자들에게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 사회복지 지식지형의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수영, 2012,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03-229.
- 김인숙, 2012, "근거이론 담론과 사회복지 지식형성: 그 지형과 의미", 『비판사회정책』, 34: 77-128.
- 박경환, 2006, "빈곤으로부터 가치 짜내는 방법-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대한 제도민족지적 비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305-322.
- 이용숙·김영천·이혁규·김영미·조덕주·조재식, 2005,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Campbell, M., 2003, "Dorothy Smith and knowing the world we live i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0(1): 3-22
- Campbell, M., 2006, "Institutional ethnography and experience as data", 91-107, in *Institutional Ethnography as Practice*, edited by Smith, 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Campbell, M., and Gregor, F., 2004, *Mapping Social Relations: A Primer in Doing Institutional Ethnography*, Toronto: Garamond.



-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
- Dellgran, P., and Hojer, S., 2001, "Mainstream is Contextual: Swedish Social Work research Dissertation and Theses", *Social Work Research*, 25(4): 243-252.
- DeVault, M. L., and McCoy, L., 2006, "Institutional ethnography: Using interviews to investigate ruling relations", 15-44, in *Institutional Ethnography as Practice*, edited by Smith, 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Denzin, N., and Lincoln, Y., 1994, "Introduction: entering the field of qualitative research", 1-18, i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edited by Denzin, N. K., and Lincoln, Y. S., CA: Sage.
- Grahame, P. R., 1998, "Ethnography, institution and the problematic of the everyday world", *Human Studies*, 21(4): 347-360.
- Hammersey, M., 2008, *Questioning Qualitative Inquiry: Critical Essays*, Los Angeles, London, New Delhi, Singapore: Sage Pub.
- Hart, R. J., and McKinnon, A., 2010, "Sociological epistemology: Durkheim's paradox and Dorothy E. Smith's actuality", *Sociology*, 44(6): 1038-1054
- Hartman, A., 1990, "Editorial: many ways of kowing", *Social Work*, 35: 3-4.
- Heineman, P. M., 1985, "The future of social work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 3-11.
- Holland, T., 1983, "Debate with authors: comments on scientific imperatives in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57: 337-356.
- McCoy, L., 2006, "Keeping the institution in view: working with interview accounts of everyday experience", 109-125, in *Institutional Ethnography as Practice*, edited by Smith, 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McLean, C., and Hoskin, K., 1998, "Organizing madness: reflections on the forms of the form", *Organization*, 5(4): 519-541.
- Nichols, N. E., 2008, "Gimme shelter! Investigating the social service interface from the standpoint of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 11(6): 685-699.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Los Angeles, Calif: Sage Publications.
- Reamer, F. 1990, *Ethical Dilemmas in Social Service*. NY: Columbia University.
- Smith, D. E., 1987, *The Everyday World as Problematic: A Feminist Sociolog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mith, D. E., 2002, "Institutional ethnography", 17-52, in *Qualitative Research in Action*, edited by May, T., London · Thousand Oaks · New Delhi: Sage Pub.
- Smith, D. E., 2005, *Institutional Ethnography: A Sociology for People*, Toronto : AltaMira Press.
- Walby, K., 2007, "On the social relations of research: A critical assessment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Qualitative Inquiry*, 13(7): 1008-1030.

## Institutional Ethnography: Why Another Methodology?

- Usefulness and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in Social Welfare Knowledge-

Kim, In So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stitutional Ethnography, a methodology, developed by Dorothy Smith in Canada. Institutional Ethnography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ethnography. Also it differs from various kinds of ethnographies such as interpretive ethnography, political ethnography, organizational ethnography, feminist ethnography, auto ethnography. Institutional Ethnography explores social organization of everyday's actualities in institutional settings. This study introduces the outlines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and examines the usefulness and implications in social welfare knowledge. Usefulness and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follows: 1) expansion and specification of knowledges of 'organized actualities' i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policy fields 2) discovery of specific points for institutional changes in social welfare fields 3) production of social welfare knowledge from the standpoint of ruled, oppressed peoples.

Key words: Institutional Ethnography, Dorothy Smith, Social Welfare Knowledge

[논문 접수일 : 12. 12. 27, 심사일 : 13. 01. 01, 게재 확정일 : 13. 02. 04]